

대행 스님

한마음으로서 한마음에서 나오는걸 한마음에다 되입력하라

여러분, 오늘 오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증득하지 못하고 오계를 방편으로만 설하고 방편으로만 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둘이 아니며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님의 온 누리의 그 뜻이 한 찰나에 서리니, 오계를 받은 분들은 앞으로 더 오계를 받을 필요가 없고, 첫째는 악한 병고에 휘달리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모든 이 한마음으로서 돌아가는 그 공부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우 꼬랑지라도 봐 줘야 물리가 터지고 충전이 되듯 우리가 산 뜻이 그대로, 전력과 자력과 통신력이, 그리고 광력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오계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을 기르고 어머니 아버지로서 위로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오계 받은 사람이 한마음을 내면 그 마음의 그 뜻이 서로서로 전달되지 않으면서도 전달되면서 이어진다는 그 밝음의 불빛! 여러분은 그저 계만 준다 하면 돈을 내고 가서 계를 받는데, 만약에 중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를 준다 하고 계첩을 만든다 하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잘 생각하시고, 이 계첩이나 또는 오늘 서로 계를 주고받은 그 뜻을 마음으로 새겨야지 물질로써 주고받은 그런 걸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부처님의 그 뜻에도 책임이 있으니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그 계를 지키도록 하시며 또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간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오계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승천하는 길이, 천당 길이 지금 청와대라면, 비유하는 겁니다, 청와대에는 근거가 없이는, 표를 안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계를 받은 뜻의 그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만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방편으로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이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거짓으로 했다면 내 책임이 아주 클 것입니다.

내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은 여러 신도님들의 돈을 받아서 만약에 허탈히 하면서 거짓으로 설했다면,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서 여러분에게 계를 설하지 않았다면, 내가 구렁이가 돼서 그 비늘마다, 여러 신도님의 의식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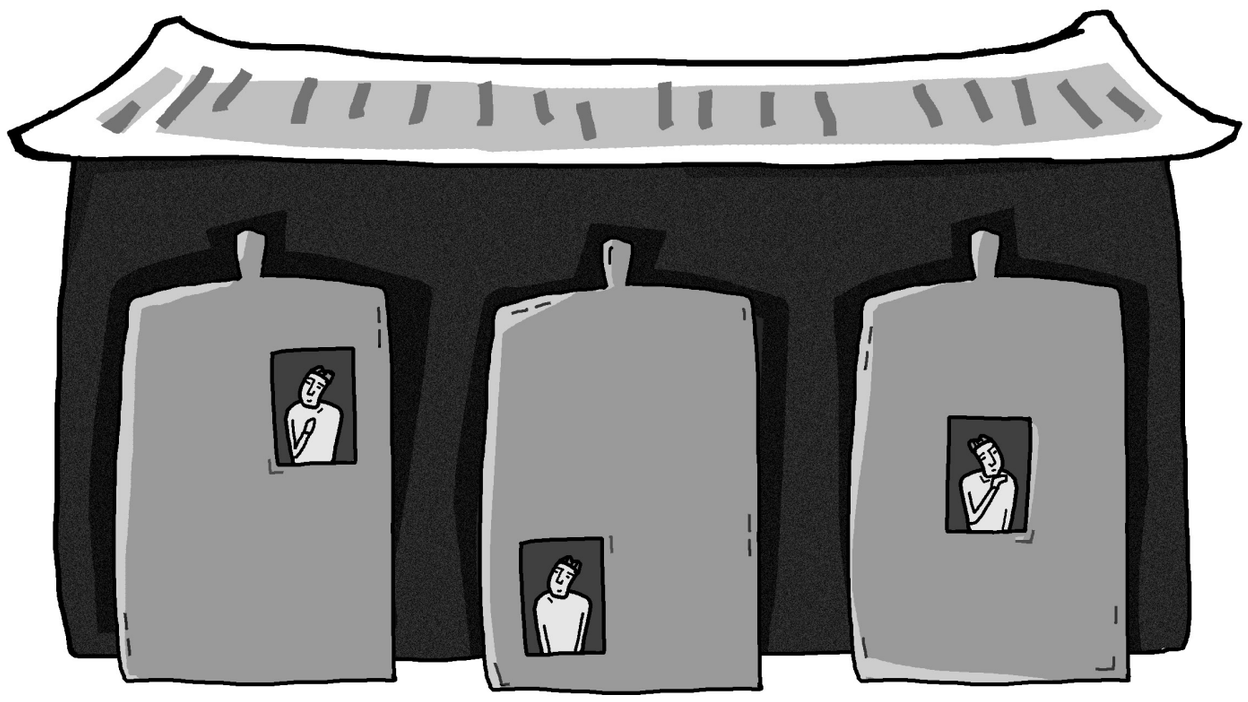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비늘마다 들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대한지 여러분은 깊이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한테 계를 설한 것을, 나는 주는 사이 없이 주었으니 여러분도 받는 사이 없이 받아서 오직 뜻으로 간직하면서 그것을 허탈히 생각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지금 선풍 한 것이 뭐냐 하면 각 절에서 계를 준다 하면 그저 무조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받는 것을 능사로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계를 허탈히 거짓으로써 방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었다면 그건 한데 떨어지는 설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며 오계를 설하되 한데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셨던 그때 그 시절의 그 뜻은 오늘날까지도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삼천 년 전이 오늘이요, 삼천 년 후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자체에서 오늘도 찰나찰나 공해서 변해 돌아가고 부서지고, 모든 게 찰나찰나 늙어지고, 젊었다가도 자라면서 늙어지고 없어지고 또 생하고 이러는 시점에서,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한마음으로서 한마음에서 나오는 걸 한마음에다 되입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진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계 받은 사람이 딴 데 가서 또 좋을 줄 알고 계를 받으면 여러분은 오늘의 그 계 받은 게 무효가 될 것입니다. 애를 써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단 1불을 쓴다 하더라도 허무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저께도 가만히 보니까 이 장소가 좁습니다. 하지만 좁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옹기종기 앉아서, 또 옹기종기 앉아 있지 못하면 저기서라도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살림이 군색한데 이 절에서 크게 한다고 집만 넓히고 그런대서야 말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시일반으로 정성스럽게 되는 한 넓히자는 거지, 여러분이 집이 없이 굶주리면서 이 절간을 넓히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군색하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병고에 휘달린다면 이 못난 중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는 병고가 없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가환이 없어지고 업보가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그 밝은 마음과 내 밝은 마음이 지속되면서 아마 웃음으로써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중들이 목탁만 쳐서 중이 아니고 머리를 깎아서 중이 아니고 옷을 입어서 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 나는 대로 자기 머리를 자기 채찍으로 치면서, 오늘도 자기 채찍으로 자기 머리를 쳤습니다. 자기 장삼 자락의 그 순색을, 그대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중심과 중도와 중용을 그대로 실천화시키는 이런 보람 있는 오늘의 이 깊은,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중들이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태어난다 또 죽는다 이런 마음도 없이, 끝 간 데 없이 여러분의 심부름을 싫다 안 할 것입니다. 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 지속되기도 하고 반 길을 가다가 반 길에 끊어질 수도 있고 현실에 한 발짝도 내밀지 못한 채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오계를 준 오늘, 내 책임도 있느니만큼 여러분 앞에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 오계 받은 것이, 그리고 계첩을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세요. 이 부처님의 뜻이, 이 삼라만상 우주 세계, 이 세계가 말 없이 바로 말이 전달되고 손 없이 손이 온 누리에 꽉 차 있고 걸어 다님이 없이 그 평발을 어디고, 바로 부처님의 발은 한발로 디뎠습니다. 엄청난 이 도리를, 광대무변한 이 도리를 여러분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의에서 구하는 것은 미신 짓이요, 자의에서 구하는 것은 진실한 정(定)에 드는 바로 참선입니다. 과거에 살던 그 마음, 참마음을 발견하는 옳은 길에, 정에 드는 길입니다. 내가 잠시 살다가 갈 것을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잠시 낙엽과 같은 것을 그렇게 타의에서 나를 살려 달라고 구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자기의 마음도 꿋꿋한데 왜 남한테 빕니까? 왜 남한테 노예가 됩니까? 왜 만날 심부름꾼이 돼야 하고 왜 남한테 구걸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농사지어서 가을이면 추수를 해 들이고 봄이면 또 심어서 또 먹고 되남고, 어려운 사람들을 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여여하고 부유하게 살지, 왜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렇게 좁디좁은 골짜기에서 썩은 물이 고이게 만듭니까?

여러분도 못났든지 잘났든지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남의 노예가 될 게 아니라 자신이, 여북하면 자신(自神)이라고 그랬나요. 남의 신에다 빌 게 아니라 내 신에다가, 차라리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신을 믿고 거기에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 못 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쫓기고 쫓으면서, 그리고 밟히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오늘날까지 인간의 탈을 쓰게끔 한 장본인의, 주처의 주인은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끌어 온 장본인 참자기를 무시한다면 여러

☞ 22면으로 계속

